

(주소) 12283 /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전화) 031-579-6000 (팩스) 031-579-6041

배 포 일	2025. 8. 28.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5. 8. 29.				
2025년 실학박물관 추사연합전 《추사, 다시》 관람객 7만 명 돌파		2	있음	https://silhak.ggcf.kr	부 서 : 학예연구팀 사업담당 : 이성연(579-6010) 홍보담당 : 구준모(579-6011)

“《추사, 다시》 기획전, 관람객 7만 명 돌파”

- ▶ 《추사, 다시》 관람객 7만 2,562명
- ▶ SNS 입소문 타고 가족·MZ세대 발길 이어져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이 지난 4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한 추사연합전 《추사, 다시》에 7만 2,56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전시로 실학박물관의 누적 관람객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두드러졌다. 파격적인 타이포그래픽 작품들이 SNS와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관람객이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사, 다시》에는 서예가 강병인, 레터링 디자이너 김현진, 디자인 듀오 양장점, 책 디자이너 함지은, 실험적 그래픽 그룹 DDBBMM 등 다양한 창작자들이 참여해 전통 서예와 현대 타이포그래피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색적인 시도가 젊은 세대의 호응을 이끌며 관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전시에서는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를 비롯해 ‘불이선란도’, ‘난맹첩’, ‘소봉래 난’ 등 잘 알려진 서예와 그림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은 “추사체와 현대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를 결합해 새롭게 조명한 점이 인기 요인”이라며 “전시 관람과 함께 인근 정약용 유적지와 다산 생태공원에서 역사·자연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사, 다시》전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실학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문화재단(<https://www.ggcf.kr>)과 실학박물관(<https://silhak.ggcf.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실학박물관 학예연구팀 031-579-6010

- ※ 붙임 1. 전시관람 및 도록 사진 각 1매
2. 김정희 작품 사진 2매

1. 전시관람 및 도록 사진



▲ 2025년 실학박물관 추사연합전 <추사, 다시> 관람사진 1



▲ 2025년 실학박물관 추사연합전 <추사, 다시> 도록 표지

2. 김정희 작품 사진



▲ 김정희 <불이선란도, 소봉래 난>



▲ 김정희 <세한도>